

# 김기태의 힘... KIA 시원한 6연승



5일 경기도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4대1로 승리, 개막 6연승을 질주한 KIA 마무리 투수 윤석민(왼쪽)과 동료들이 경기 종료 후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KT와 주말 3연전 싸움이... 문경찬, 데뷔전 선발승

임준혁·필 공백 신인들 맹활약 '잇몸 야구'로 4-1



KIA 타이거즈가 '잇몸 야구'로 6연승을 찍었다.

KIA 타이거즈가 5일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즌 3차전에서 루키 문경찬의 깜짝 활약 속에 4-1 승리를 거뒀다. 개막전부터 시작된 '호랑이 군단'의 승리 행진은 6연승까지 이어졌고, 문경찬은 프로 데뷔전에서 선발승을 거둔 투수로 이름을 남겼다. 2013년 4월3일 대전 한화전에서 임준섭이 신인 데뷔 선발승을 거둔 지 2년 만에 나온 KIA의 기록이다.

부상이 겹치면서 뜻하지 않게 전개된 '잇몸 야구'였다.

이날 선발로 준비했던 임준혁이 허리 근육통으로 엔트리까 말소되면서 대출 신인 문경찬이 프로 첫 등판을 선발투수로 소화했다. 김주찬이 종아리 근육통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운데 타선의 핵 필까지 전날 허벅지 근육통을 입으면서 자리를 비우는 등 공·수에서 플랜B가 가동됐다.

kt가 노련한 옥스프링을 선발로 내세우면서 KIA의 연속 걸목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4이닝, 5이닝만 던져주면 좋겠다"던 김기태 감독의 기대를 넘어서는 문경찬의 피칭이 나왔다. 직구 최고 구속이 141km에 머물렀지만 문경찬은 자신감 있는 직구 구사해, 최저 91km의 슬로우 커브를 통한 '느림의 미학'을 곁들여 5.1이닝 4피안타 1볼넷 1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3개의 병살타까지 유도하는 등 70개의 공으로 5.1이닝을 막은 효과적인 피칭이었다.

또 다른 잇몸 김다원은 옥스프링을



승리투수 문경찬

상대로 3개의 안타를 뽑아내며 승리를 이끌었다. 필이 빠지면서 지명타자로 출전해왔던 최희섭이 1루수가 됐고, 좌익수를 맡았던 나지완이 지명타자가 됐다. 그리고 나지완이 빠진 좌익수로 김다원이 들어섰다.

1회부터 6번 타자 김다원에게 타점 기회가 찾아왔다. 선두타자 김원섭이 유격수 송구실책으로 살아나간 뒤 최용규의 볼넷까지 더해졌다. 기대했던 최희섭과 나지완이 연속 삼진으로 물러난 뒤, 이범호의 볼넷으로 채워진 만루. 김다원이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김다원은 수비에서도 깔끔한 모습을 보이며 막내 문경찬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마무리 윤석민은 9회를 1탈삼진 포함 삼자범퇴로 막으면서 시즌 3세이브에 성공했다.

승리의 주역이 된 문경찬은 "열렬했고 무슨 공을 던졌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전이라고 생각 안하고 편하게 경기를 하려고 했다. 재미있었고 설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김여울기자 wool@

## 임준혁, 전진 위한 후퇴

스프링 캠프 모범생...허리 부상에 1군 엔트리 말소

KIA의 초반 질주에는 팀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

지난 4일 kt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김기태 감독은 취재진에게 임준혁의 이름을 꺼내며 "마음이 안타깝네요"라는 말을 했다. 김기태 감독의 표정에서도 진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이날 임준혁은 허리 근육통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시즌 첫 선발 등판을 하루 앞둔 상황이었다. 마무리 캠프 투수 조장로 후배들을 이끌었던 임준혁은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시범경기까지 열심히 그리고 꾸준한 페이스로 김기태호의 모범생이자 기대주로 주목을 받은 선수다.

하지만 겨우내 준비했던 실력을 발휘하려는 순간 뜻밖의 부상이 찾아오면서 김기태 감독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임준혁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광주로 향했다. 준비를 잘 해왔던 만큼 아쉬움은 더 컸다.

임준혁은 선발 등판을 준비하면서 "허리가 조금 좋지 못해서 걱정이야. 감독님께서 (윤)석민이를 마무리로 돌려보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만큼 내가 더 열심히 할 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임준혁의 바람과 달리 오매불망 기다리던 선발 등판 기회가 무산됐다. /수원=김여울기자 wool@

## 현역 최다 만루포 이범호 "희생플라이라도 치자 했었죠"

### 그라운드 특독

▲"잘 던지더라. 감독님 말씀 잘 듣고 잘해라"

4일 kt 덕아웃에서 머쓱한 제자 양현종과 기특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스승 조범현 감독의 만남이 있었다. 양현종은 전날 경기에서 7이닝 5피안타 2볼넷 7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이며 스승 조범현 감독이 지휘하는 kt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쟁겼다. 제자의 호투에 패장이 되기는 했지만 조 감독은 "잘 던지더라. 감독님 말씀 잘 듣고 잘해라"며 양현종에게 덕담을 건넸다. 조 감독은 "(최희섭은) 홈런 하나만 치라고 했더니 두 개나 쳤다"며 옛 제자들의 활약에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어디 이야기 해봐. 들어보게"

5일 훈련이 끝나고 덕아웃에 들어오던 최희섭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취재진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에 놀란 표정이 된 최희섭은 그 주인공이 후배 최용규라는 것

을 알고는 흐뭇한 미소와 함께 "어이 이야기 해봐. 들어보게"라고 장난을 걸었다. 선배의 장난 속에 최용규는 스스럼없이 4년의 공백 끝에 돌아온 그라운드에 대한 마음을 밝혔다. 최용규는 "오늘 나오면서 어제 기록은 잊었다. 매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냉큼 돌아가라고 그랬죠"

친정으로 돌아와 마음이 편한 윤석민은 요즘 장난도 곧잘 치면서 분위기 메이커가 됐다. kt와의 원정 첫 날 윤석민은 뜻밖의 손님을 맞았다. kt의 씩씩한 막내 투수 박세웅이 공을 들고 윤석민을 찾아온 것이다. 슬라יד러와 체인지업에 대해 알고 싶다고 찾아왔더라는 게 윤석민의 실명.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을 받은 윤석민은 익살스런 표정으로 "비밀이다. 냉큼 꺼지라고 그랬다"고 대답을 했다. 물론 윤석민의 장난이었다. 윤석민은 "한국야구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림과 던지는 요령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다. 씩씩하게 잘 성장하면 좋겠다"고 웃

었다. 윤석민의 장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4일 경기가 끝난 후 이범호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본 윤석민은 걸음을 멈추고 취재진 사이에 끼어 "얼마 만에 인터뷰를 하시는 겁니까?"라고 질문을 던진 뒤 사라졌다.

▲"만루에 많이 치면 좋죠. 희생플라이라도 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범호의 담담한 현역 최다 만루홈런 소감이었다. 이범호는 지난 4일 kt전 9회 무사 1만루 상황에서 이성민을 상대로 중양을 가르며 비거리 130m짜리 대형 홈런을 날리며 개인 통산 11번째 만루홈런을 기록했다. 이 홈런으로 이범호는 삼성 이승엽을 따돌리고 현역 최다 만루홈런 주인공이 됐다. 통산 기록으로 따져도 12개를 기록한 심정수에 이어 2위다. 이범호는 이날 앞선 3회에는 시스코에게 투런을 뽑아내는 등 한방으로 6타점을 올리며 5연승의 주인공이 됐다.

/수원=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발군'의 손연재

체조월드컵 개인종합4위  
전종목 결선 진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시즌 두 번째 월드컵에서 개인종합 4위에 올랐다.

손연재는 5일(한국시각)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대회 개인종합 종목별 예선 이틀째 경기에서 곤봉 18.150점(5위), 리본 17.950점(6위)을 받았다. 전날 후프 17.900점(3위), 볼 18.050점(5위)을 더한 4종목 합계 72.050점으로 개인종합 4위를 기록 13회 연속 월드컵 메달 시상애 나선다. /연합뉴스